

# ‘광주속의 섬 주민’ 5000명 “우리도 수돗물 마시고 싶다”

## 평동 동산마을 등 52곳 2193세대 지하수 의존 불편 주민들 “매일매일 식수전쟁 괴롭다...상수도 보급을”

광주시 광산구 평동 동산마을에 사는 전 남식(58)씨는 매일 밤 지하수 수도꼭지를 약하게 틀어놓고 잠든다. 밤사이 수도꼭지가 얼어버리는 것을 막기 위해서다. 전 씨 가족은 비용이 부담돼 생수를 사서 식수로 사용하지 못하고 지하수를 끌어 마시고는 있지만 점점 기본을 떨칠 수 없다. 평동산단 인근에 마을이 위치한 탓에 식수로 쓰는 지하수가 안전한 지 확신하지 못

하기 때문이다. 그는 집안 대대로 사용했던 지하수 수질 검사를 지금껏 단 한 번도 하지 못했다. 전씨는 “주민들이 개별적으로 한 수질 검사에서 수질 불량 판정이 여러 번 나왔기 때문에 물을 끌어 마시고는 있어도 걱정된다”고 말했다.

광산구 임곡동 외산마을 주민들도 마찬가지다. 주민들은 머느리라고 사위, 손자, 손녀 등 떨어져 사는 가족이 오거나 손님이

오는 날엔 인근 마트에 달려가 생수를 사와 ‘대접’하고 있다. 이 마을에는 아직 수돗물이 공급되지 않아 지하수를 끌어 식수로 사용하고 있지만 마을을 찾는 손님들은 입에 대려하지 않기 때문이다.

외산마을 주민들은 “어서 빨리 상수도가 보급돼 먹는 물 걱정이라도 없었으면 좋겠다. 우리도 광주시민 아니냐”고 말했다.

23일 광주시 상수도사업본부에 따르면 이날 현재 상수도가 보급되지 않은 광주지역 자연 마을은 총 52곳, 2193세대 4736명이 불편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행정 구역별로는 북구 9개 마을(무등산 고지

대 8개 마을 포함), 광산구 43개 마을이다.

광산구 평동 동산마을 143세대를 비롯한 2193세대는 광역시에 살면서도 지금껏 수돗물 대신 지하수를 이용하고 있는 것이다. 일반 시민에게는 틀면 언제든 팔팔 쏟아지는 수돗물이 자연마을 주민들에게 ‘남들’ 얘기다.

상수도사업본부는 지난 1996년부터 최근까지 250억 원을 들여 자연마을 266곳 주민들이 수돗물을 사용할 수 있도록 상수도관을 놔왔다.

수돗물 ‘혜택’에서 소외된 52개 마을 중 대부분은 향후 10년간 지하수를 개별적

으로 사용하는 등 불편이 지속할 것으로 보인다. 예산 부족을 이유로 상수도사업본부가 2015년 4개 마을 ▲2016년 8개 마을 ▲2017년 4개 마을 등 16개 마을(839세대)에 대해서만 시설 투자 계획을 수립했기 때문이다.

이들 16개 마을에 우선적으로 상수도 보급 사업이 이뤄지는 까닭은 지난 2012년 급수요구조사에서 주민 50% 이상이 상수도 보급을 적극적으로 요구했기 때문이다. 반면, 북구 화암동 화암마을 등 8개 마을은 무등산 고지대 자연마을인 탓에 상수도 보급 여부가 불투명한 상황이며, 나머지

28개 마을은 상수도 보급을 적극적으로 요구하지 않았기 때문에 우선 순위에서 미뤄졌다는 게 상수도사업본부 측 설명이다.

상수도사업본부 관계자는 “수돗물 공급이 안 되는 자연마을 중 일부에서 지속적으로 주민 불편 사항이 접수되고 있지만 자체 예산이 부족한 탓에 상수도 보급에 어려움이 있다”며 “상수도가 보급되지 않은 자연마을 가운데 지하수가 고갈되거나 수질이 불량 것으로 확인될 경우 우선순위를 조정하거나 긴급 예산을 편성해 주민 불편을 최소화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김형호기자 khh@kwangju.co.kr

## 장애 아들 출산 괴로워하던 여경 자살

### 생후 25일된 아들과 함께

생후 25일된 아들이 장애판정을 받은 것에 괴로워하던 현직 경찰관이 아들과 함께 극단적인 선택을 했다.

지난 22일 밤 10시20분께 광주시 광산구 A아파트 화장실에서 이 아파트에 사는 전남 모 경찰서 소속 B(여·33)씨가 목을 매 숨져 있는 것을 남편(33)이 발견, 경찰에 신고했다.

물이 찬 욕조에 생후 25일된 아들이 숨져 있었다. B씨는 지난 1일부터 출산 휴가 중이었다.

B씨는 지난달 말 입술과 입천장이 갈라지는 구순구개열(속칭 언청이)을 앓는 남자 아이를 낳은 뒤 최근 병원에서 클라인펠터 증후군 판정을 받게 되자 괴로워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클라인펠터 증후군은 여성의 성염색체가 하나 더 있어서 발달과 생식 능력에 장애를 초래하는 유전자 질환이다. 정자 수가 극히 적어 불임으로 이어질 수도 있다.

안방에선 B씨가 숨지기 직전 작성한 것으로 보이는 유서가 발견됐다.

유서엔 “아들이 앞으로 세상을 살아가기가 힘들 것 같다. 이 아이로 인해 남편과 딸이 고통스러워 할 것을 생각하면 괴롭다. 아들을 데리고 먼저 떠나겠다”는 등의 내용이 적혀 있었다.

경찰은 숨진 B씨가 최근 아이 때문에 많이 힘들어했다는 주변 진술 등으로 미뤄 아들과 함께 목숨을 끊은 것이 아닌가 보고 정확한 사인을 조사 중이다.

/박기용기자 pboxer@kwangju.co.kr



## 사랑나눔 “행복해”

23일 광주시 북구청 대회의실에서 열린 연말 어려운 이웃과 함께하는 사랑·나눔을 위한 자원마련 행사에서 북구청 청년간부위원들이 직원들에게 직접 만든 유자차와 모과차, 편백방향제 등을 판매하고 있다. 이날 수익금은 희귀질환 아동과 소아암환자, 사회복지시설, 유니세프에 기증할 계획이다. /나영주기자 mjna@kwangju.co.kr

## 2009년 철도파업 노조 간부 업무방해 유죄

### 광주지법 항소심

지난해 ‘철도 민영화 반대’를 내세우며 사상 최장기간 철도파업을 주도한 혐의로 기소된 철도노조 집행부에게 무죄가 선고된 가운데 2009년 이뤄진 철도민영화 반대를 위한 순환 파업 등에 가담한 노조 간부들에 대해서는 업무방해죄를 적용, 유죄로 판단한 항소심 판결이 나왔다.

비슷한 파업에 대한 사문 다른 판결 결과라는 점에서 상급심 판단이 주목된다.

광주지법 형사항소 1부(부장판사 김춘호)는 23일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조모(46) 전 철도노조 순천지방법본부장 등 순천 지역 철도노조 간부와 조합원 14명에 대한 항소심에서 일부를 제외한 핵심 범죄사실에 대해 유죄를 선고했다고 밝혔다.

조씨는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한 원심을 그대로 유지했고 나머지 피고인들도 대부분 벌금 50만~200만원 등 원심

대로 양형을 유지했다.

조씨 등은 정부의 공공기관 선진화 계획 등에 반발해 철도노조가 2009년 11월 5일부터 3일간 벌인 지역별 파업, 같은달 26일부터 8일간 벌인 전면파업에 가담하고 역사 등에서 소란을 피운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철도노조 파업의 불법성 정도가 가볍지 않고 짧지 않은 순환·전면 파업으로 철도공사에 상당한 피해가 발생한 점, 파업과 역사 소란행위로 국민이 피해를 본 점 등을 고려했다”며 양형 배경을 설명했다.

특히 재판부는 사용자가 예측할 수 없는 시기에 ‘전격적’으로 이뤄져 사업 운영에 혼란 내지 손해를 초래한 경우가 아닌 만큼 업무방해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노조측 주장과 관련, “철도공사로서는 노조가 순환파업 및 전면 파업을 실제로 강행하리라고는 예측할 수 없었다고 평가함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김지율기자 dok2000@

## 상사 지시로...사표 낸 동료 회사 데려오다 교통사고 부상 “출장 중 사고 인정...업무상 재해” 판결

회사 상사의 지시로 자신의 담당 업무가 아닌에도 사직 의사를 밝힌 동료를 설득하기 위해 회사 밖 식당에서 술을 곁들인 점심 자리를 갖고 자신의 차량을 타고 돌아오던 길에 교통사고를 당했다면 업무상 재해로 보아야 할까.

광주고법 행정1부(부장판사 박병철)는 A(여·42)씨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제기한 ‘요양불응인처분 취소’ 청구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1심은 ‘A씨가 맡고 있는 경리 업무가 동료의 사직 의사를 반복시키기 위한 설득 행위와 관련 없고

자신을 위해 함께 식사하며 설득해 준 A씨 대신 식사비를 지불한 점 등도 상식에 반하지 않는다며 출장 중 발생한 사고로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A씨는 지난 2012년 8월 7일 오후 4시 30분께 담양군 월산면 인근 식당에서 사직 의사를 밝힌 동료 직원과 식사한 뒤 회사로 돌아오다 교통사고를 당했다. A씨는 당시 식사비를 미신 술로 자신의 차량을 동료 직원에게 운전하게 하고 조수석에 탑승했었다.

A씨는 사고 이후 상사 지시로 동료 직원의 사직을 만류하기 위해 점심 자리를 갖고 복귀하던 중 발생한 사고인 만큼 출장 업무 수행 중 발생한 재해라며 근로복지공단에 요양급여를 신청했으나 거절당하자 소송을 제기했다. /김지율기자 dok2000@kwangju.co.kr

러는 자신을 위해 함께 식사하며 설득해 준 A씨 대신 식사비를 지불한 점 등도 상식에 반하지 않는다며 출장 중 발생한 사고로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A씨는 지난 2012년 8월 7일 오후 4시 30분께 담양군 월산면 인근 식당에서 사직 의사를 밝힌 동료 직원과 식사한 뒤 회사로 돌아오다 교통사고를 당했다. A씨는 당시 식사비를 미신 술로 자신의 차량을 동료 직원에게 운전하게 하고 조수석에 탑승했었다.

A씨는 사고 이후 상사 지시로 동료 직원의 사직을 만류하기 위해 점심 자리를 갖고 복귀하던 중 발생한 사고인 만큼 출장 업무 수행 중 발생한 재해라며 근로복지공단에 요양급여를 신청했으나 거절당하자 소송을 제기했다. /김지율기자 dok2000@kwangju.co.kr

## ‘똥콩 회항’ 조현아 오늘 구속영장 청구

서울서부지검 형사5부(이근수 부장검사)는 23일 ‘똥콩 회항’ 사태로 물의를 빚은 대한항공 조현아(여·40) 전 부사장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검찰은 항공보안법상 항공기항로변경죄, 항공기안전운항지해폭행죄, 강요죄 등 혐의로 24일 오전 구속영장을 청구할 예정이다.

검찰에 따르면 조 전 부사장은 지난 5일(미국 현지시간) 대한항공 KE086 일등석에서 견과류 서비스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여승무원과 사무장을 상대로 폭언·폭행을 하고 랩트리언(항공기를 탑승 게이트로 되돌리는 일)을 지시, 사무장을 강제로 내리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 전 부사장의 영장실질심사는 내주 초 열릴 전망이다. /연합뉴스

## 전자발찌 충전 안한 40대 철창행



○성범죄 전력으로 이른바 전자발찌(위치추적장치)를 착용한 40대 남성이 방전된 배터리를 고의로 충전하지 않고 돌아다니다가 철창행

○23일 광주경찰청에 따르면 문모(44)씨는 지난 11월 17일 오후 1시 광주시 광산구 장덕동 하남공원 앞길에서 배터리 방전으로 전원이 꺼진 전자발찌를 차고 돌아다니는 등 최근까지 여덟 차례에 걸쳐 전자장치 착용 의무를 위반한 혐의.

○지난 10월 강간상해죄로 징역 4년형을 받고 만기출소한 문씨는 보호관찰관으로부터 ‘전원이 꺼지면 처벌할 수 있다’며 수차례 경고를 받고도 이를 무시했는데, 경찰에서 “깜빡 잊고 충전을 못한 것”이라고 변명. /박기용기자 pboxer@



2015년 신입생 모집

## 상해대외경제무역대학

### 국제경제무역학과

홈페이지 [www.suibe.co.kr](http://www.suibe.co.kr)

---

2015학년도 9월학기 입학생 모집요강

**모집 대상** ▶ 고등학교 졸업자(2015년 2월 졸업예정자 포함) 검정고시 가능

**모집 기간** ▶ 2015년 2월 28일까지 (중국어 미합자 신청가능)

**모집 인원** ▶ 30명

**성공 중국유학**  
내신 NO! 수능 NO!

**수강 기간** ▶ 2015년 3월~8월 (6개월) (1일 6시간, 주 30시간, 총 720시간 이수)

**강의 내용** ▶ 중국유학준비과정 중국어 집중훈련 수료 후 중국대학 입학



www.gochina.co.kr  
중국 전문 언어학  
입학상담문의

233-9582 (중) 구오팔리

2인분을 주문하면 2인분을 더드리는

# 참숯에 구워먹는 소고기전문점

소갈비살, 소안창살, 살치살

소고기 비싸게 먹을 필요 없습니다! 1인 만원이면 실컷 드실 수 있습니다

<b>소갈비살 기본가격</b>	기본2인분 2+2 = 20,000원	국내산돼지갈비2+2(700g) 20,000
	기본3인분 3+3 = 30,000원	국내산갈비메기살2+2(480g) 20,000
	기본4인분 4+4 = 40,000원	왕갈비탕(6,000원) 볼백 (6,000원)

625세대는 단리도 아닙니다.

## 초대박매출

신규창업,업종전환 시 성공을 보장합니다  
오른점 일평균 2백만~4백만원 이상 대박!!

광주, 호남지역 체인점모집

262-0049/010-3803-2612

오치점(266-0045) · 두임점(251-8216)  
교대점(526-6617) · 일곡점(573-5204)